

현안과 과제

■ 2015년 3/4분기 체감경기 특징과 시사점
- '40대 중소득층 자영업자'의 체감경제고통지수 높아

Executive Summary

□ 2015년 3/4분기 체감경기 특징과 시사점 - '40대 중소득층 자영업자'의 체감경제고통지수 높아

■ 개요

현재 한국 경제는 미약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식하고 있다. 체감 경기는 소비 심리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소비활동에도 영향을 끼친다. 2012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4년 연속 '1% 함정'에 빠져있는 민간 소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제 지표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체감 지표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전국 성인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성장, 고용, 물가, 소득, 지출 상태에 대한 설문을 통해 국민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 2015년 3/4분기 체감경기 특징

첫째, 우리나라 경제가 미약하게나마 성장하고 있으나 응답자들은 오히려 후퇴한다고 느끼고 있다. 응답자들의 평균 체감 경제성장률은 -0.2%로 실제 경제성장률 2.2%(2/4분기 기준)를 크게 하회하였으며, 특히 '30~40대 중소득층 자영업자'가 체감 경제성장률을 낮게 인식하고 있다. 둘째, 응답자들은 경기 후퇴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응답자들의 평균 체감 물가상승률은 3.0%로 실제 물가상승률 0.7%(8월 기준)보다 크게 높았으며, 특히 '저소득층 임금근로자'가 체감 물가상승률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셋째, 응답자들은 실업률이 실제보다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 2015년 7월 실제 실업률은 3.4%이지만 응답자들이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15.2%에 달했으며, 특히 '20~40대 남성'이 체감 실업률을 비교적 높게 인식하고 있다.

< 체감 및 실제 성장률과 물가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은행.

< 체감 및 실제 실업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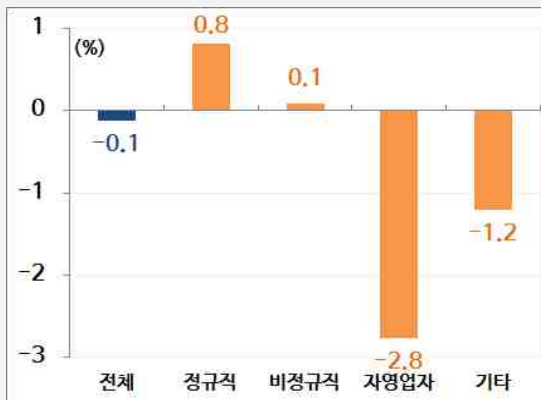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은행.

넷째, 가계 소득이 실제로는 증가하고 있지만 응답자들은 오히려 감소한다고 느끼고 있다. 응답자 평균 체감 소득증가율은 -0.1%로 실제 소득증가율 2.9%(2/4분기 기준)를 크게 하회하였으며, 특히 '50대 이상의 은퇴연령층 자영업자'가 낮게 인식하고 있다. 다섯째, 응답자들은 실제보다 의무지출 부담이 더 크게 증가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응답자들의 평균 의무지출(교육비+주거비+의료비) 증가율은 3.8%로 실제 의무지출 증가율 2.6%(2/4분기 기준)를 상회하였으며, 특히 '40대 중소득층 정규직'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응답자들의 평균 문화·여가지출 증가율은 0.1%에 불과했으며, 특히 '30대 중소득층 자영업자'의 체감 문화·여가지출이 감소하는 등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여섯째, 2015년 3분기 체감경제고통지수는 22.0p로, 정부 공식 통계치로 산출한 실적경제고통지수 8.5p 보다 13.5p나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실업률이 괴리를 견인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소득층이 23.3p로 가장 높은 반면 고소득층은 가장 낮은 20.6p를 기록했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자영업자가 23.8p로 가장 높고 정규직이 가장 낮은 21.4p를 기록했다. 종합하면, 현재 체감경제고통을 가장 크게 느끼는 사람은 "40대 중소득층 자영업자"로 대표된다.

< 체감소득 : 종사상지위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 체감 및 실적경제고통지수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시사점

전반적으로 체감 경기가 실제 경기보다 부진하여 경제 활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어 체감 경기를 개선해야 한다. 첫째,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 가계 소득을 늘려야 한다. 특히 체감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 자영업자, 고령층과 체감실업률이 높은 20대 고용대책이 시급하다. 자영업자 소득 증대를 위해 비자발적·생계형 창업을 축소하고 재취업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등 의무지출 부담은 덜어주고 문화여가 향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중소득층에서 의무지출 부담이 크고 문화여가 지출이 감소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셋째, 경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넓히고 디플레이션 우려를 완화할 커뮤니케이션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1. 개요

- (연구배경)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기는 실제 경기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설문을 통해 현재 민간의 체감 경기 수준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
 - 현재 한국 경제는 미약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식
 - 2015년 2/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2.2%로 미약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가구당 월평균 소득증가율 역시 전년동기대비 2.9%로 증가
 - 반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제성장률은 -0.2%로 침체 국면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체감 소득증가율 역시 -0.1%로 감소하고 있다고 인식
 - 현재 물가 상승률이 0%대의 안정된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국민들의 체감 물가상승률은 약 3%대로 나타나는 등 체감 지표와 실제 지표간의 괴리가 상당한 수준
 - 체감 경기는 소비 심리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소비활동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
 - 실제 경기보다 체감 경기가 부진할 경우 개인들의 심리 위축을 야기해 적극적인 경제 활동을 저해
 - 특히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소비 활동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곧 민간 소비 부진으로 귀결
 - 2012~2014년 민간소비는 각각 1.9%, 1.9%, 1.8% 성장에 그쳤으며, 2015년에도 1분기 1.5%, 2분기 1.7%를 기록해 올 상반기까지 4년 연속 '1% 함정'에 빠져있는 상황
 - 민간의 소비 여력이 실제 소비 활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 및 대응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실제 지표뿐만 아니라 민간의 체감 지표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존재
- (설문조사 개요) 전국 성인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성장, 고용, 물가, 소득, 지출 상태에 대한 설문을 통해 국민의 인식을 조사
 - 설문 기간은 2015년 8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이며, 유선전화 설문으로 오차 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pm 3.5\%$ 임

2. 2015년 3/4분기 체감경기 특징

① (체감성장)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미약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응답자들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인식

○ 응답자들의 평균 체감 경제성장률은 -0.2%로 실제 경제성장률 2.2%를 하회

- 정부가 발표한 경제성장률이 2.2%인 반면,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제성장률은 -0.2%로 -2.4%p나 낮은 수준

·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가 1년 전에 비해 2.2%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귀하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몇 % 성장하거나 후퇴한 것 같습니까”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평균 체감 경제성장률은 -0.2%¹⁾로 조사

·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2/4분기 실제 경제성장률 2.2%(전년동기대비)와 비교하면, 응답자들은 실제 지표와는 달리 한국 경제가 후퇴하고 있다고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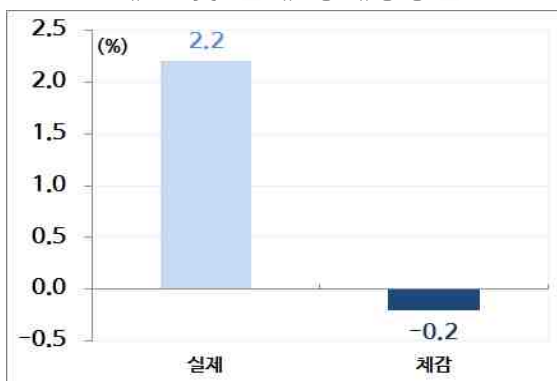
○ 특히 '30~40대 중소득층 자영업자'가 체감 경제성장률을 낮게 인식

-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은 30대와 40대가 체감하는 경제성장률이 여타 연령대에 비해 가장 낮음

· 2014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은 40대가 80.9%로 가장 높고 30대 76.3%, 50대 75.9% 등 30~50대의 경제활동이 활발하며, 20대는 63.1%, 60세 이상은 39.9%로 상대적으로 낮음

· 반면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은 30대와 40대가 체감하는 경제성장률이 모두 -0.3%로 여타 연령대에 비해 가장 낮게 응답

< 체감 및 실제 경제성장률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은행.

< 체감성장 : 연령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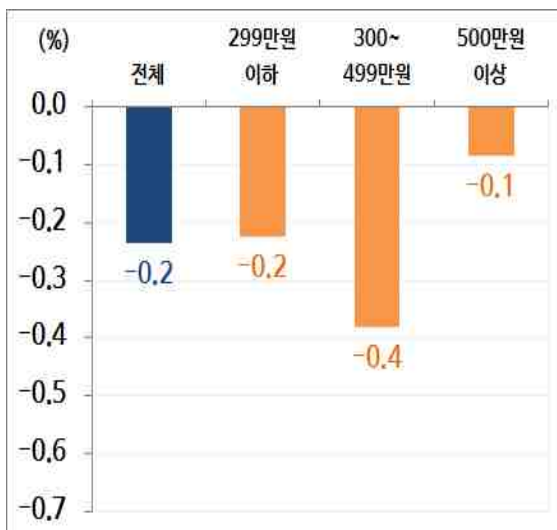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1) 806개 표본 중 이상치(outlier; 평균에서 표준편차의 3배 이상 떨어져 있는 응답)를 제외하고 평균을 산출. 이하 체감 물가, 실업, 소득, 의무지출, 여가문화지출도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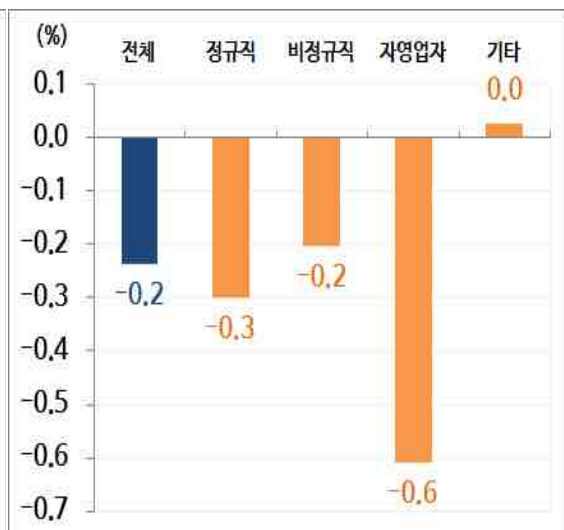
- (월소득수준별) 월평균 가구소득 300~499만원대인 중소득층이 체감하는 경제성장률이 여타 소득수준대에 비해 가장 낮음
 - 중소득층 : 월평균 가구소득 300~499만원 대인 중소득층이 체감하는 경제성장률은 -0.4%로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임
 - 저소득층 : 월평균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대인 저소득층이 체감하는 경제성장률은 -0.2%로 평균 수준을 기록
 - 고소득층 :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이 체감하는 경제성장률은 -0.1%로 여타 가구 대비는 높은 편이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식하고 있음
 - 조사결과, 모든 소득 계층에서 가구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성장이 후퇴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득층의 체감 경제성장률이 가장 낮음
- (종사상지위별) 자영업자가 체감하는 경제성장률이 정규직, 비정규직 등 임금근로자보다 현저히 낮음
 - 정규직의 체감 경제성장률은 -0.3%, 비정규직의 체감 경제성장률은 -0.2%로 조사되어 임금근로자들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평균 수준을 유지
 - 반면 자영업자의 체감 경제성장률은 -0.6%로 매우 낮게 조사되어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경기 위축이 임금근로자들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내수 침체로 자영업자 소득이 줄어들면서 체감 성장도 악화된 것으로 판단됨

< 체감성장 : 月소득수준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주 : 응답자 가구의 세후소득 기준.

< 체감성장 : 종사상지위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주 : 기타는 주부, 학생, 무직 등을 포함.

② (체감물가) 응답자들은 경기 후퇴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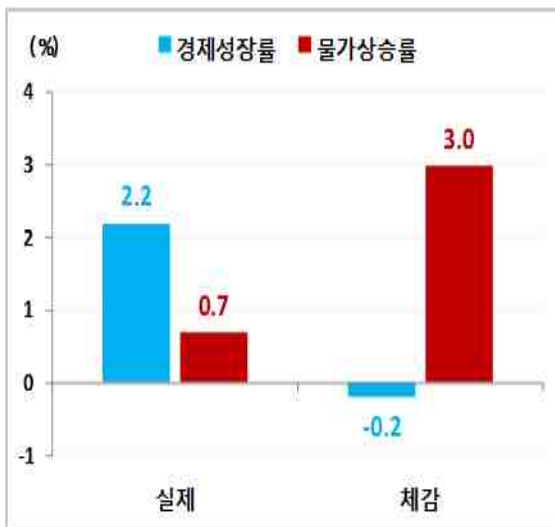
○ 응답자 평균 체감 물가상승률은 3.0%로 실제 물가상승률 0.7%를 상회

- 정부가 발표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8월 기준 0.7%인 반면,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물가상승률은 3.0%로 2.3%p나 더 높은 수준
 - “정부는 소비자물가가 1년 전에 비해 0.7%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귀하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몇 % 상승하거나 하락한 것 같습니까?”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평균 체감 물가상승률은 3.0%로 조사
 -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8월 소비자물가지수 0.7%(전년동기대비)와 비교하면, 응답자들은 실제 지표와는 달리 소비자물가가 더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

○ 특히 ‘저소득층 임금근로자’에서 체감 물가상승률을 높게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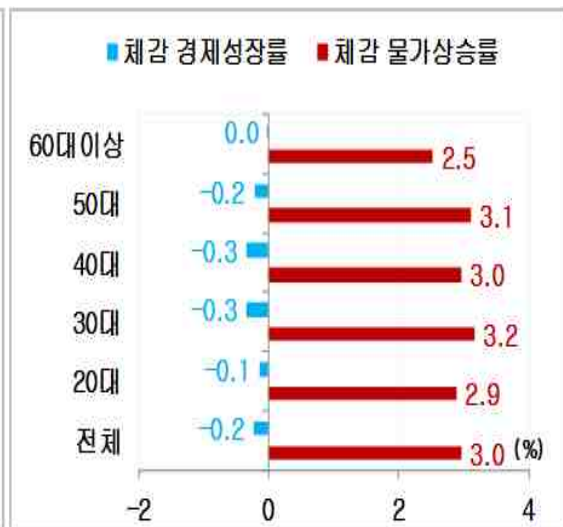
- (연령별) 60대 이상 연령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체감 물가상승률이 높다고 인식
 - 20대~50대 연령층의 체감 물가상승률은 평균(3.0%)과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
 - 60대 이상 연령층의 체감 물가상승률은 평균보다 다소 낮은 2.5%로 조사

< 체감 및 실제 성장률과 물가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은행, 통계청.

< 체감 성장률 및 물가 : 연령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 (월소득수준별)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일수록 체감 물가상승률이 높다고 인식

- 월평균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의 체감 물가상승률은 2.7%로 평균 체감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
- 반면 월평균 가구소득이 299만원 이하, 300~499만원인 응답자의 체감 물가상승률은 각각 3.2%, 3.0%로 나타나 저소득층일수록 물가상승률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
- 살림살이가 팍팍한 저소득층일수록 물가 상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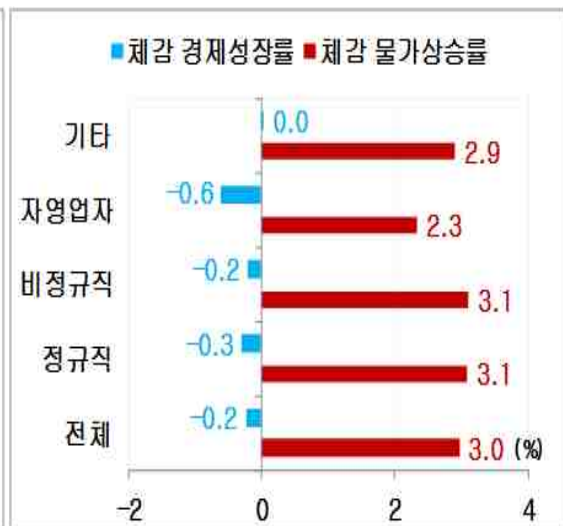
- (종사상지위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임금근로자의 체감 물가상승률이 높다고 인식

- 응답자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임금근로자의 체감 물가상승률은 모두 3.1%로 유사한 수준이며, 평균 체감 물가상승률보다 약간 높음
- 반면 자영업자의 체감 물가상승률은 2.3%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최근 자영업자들은 경기 부진 및 경쟁 심화로 판매 가격 인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체감 물가 상승률이 임금근로자보다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체감 성장률 및 물가 : 月소득수준별 > < 체감 성장률 및 물가 : 종사상지위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③ (체감실업) 응답자들은 실제보다 더 크게 취업이 어렵다고 인식

○ 응답자 평균 체감 실업률은 15.2%로 실제 실업률 3.7%를 크게 상회

- 정부가 발표한 공식 실업률 3.7%, 고용보조지표³⁾ 11.3%와 비교할 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15.2%로 매우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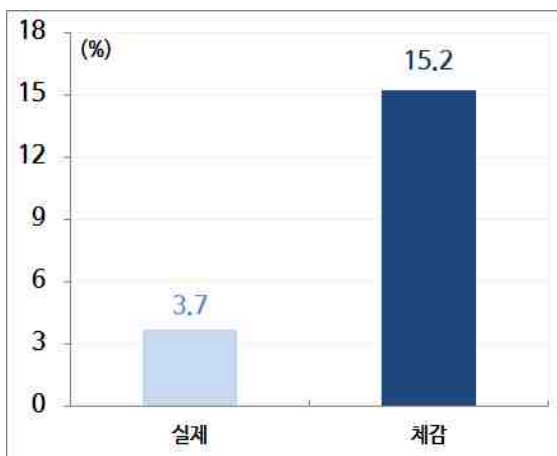
- “정부는 체감 실업률이 11.3%라고 발표했습니다. 귀하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실업률이 몇 % 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평균 체감 실업률은 15.2%로 조사
-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7월 실업률 3.7%, 고용보조지표³⁾ 11.3%와 비교하면, 응답자들은 실제 지표보다 실업률이 더 높다고 생각

○ 특히 20~40대와 남성근로자들이 체감 실업률을 비교적 높게 인식

-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20~40대 연령층의 체감 실업률이 높음

-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20대~40대 연령층의 체감실업률은 각각 15.4%, 15.2%, 15.3%로 평균을 상회
- 은퇴연령층인 50대와 60대 이상 연령층의 체감실업률은 모두 평균보다 다소 낮은 14.8%로 조사
- 은퇴연령층보다는 실제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노동시장 진입 및 구직연령층에서 체감하는 실업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

< 체감 및 실제 실업률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 체감실업 : 연령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2) 고용보조지표³⁾은 공식 실업자에 ‘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당장 일할 의사가 있고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 등)를 포함시킨 수치로, 체감실업률에 가까운 개념.

- (월소득수준별) 소득 수준별 체감 실업률 차이는 크지 않음

- 월평균 가구소득이 299만원 이하, 300~499만원, 500만원 이상인 응답자의 체감실업률은 각각 15.4%, 15.4%, 15.3%로 조사
- 즉, 소득 수준별 체감실업률 차이는 크지 않으며, 성별·연령별 체감 실업률 격차에 근거해보면 소득 수준보다는 노동시장에서의 구직, 취업 활동 여부가 체감 실업률에 보다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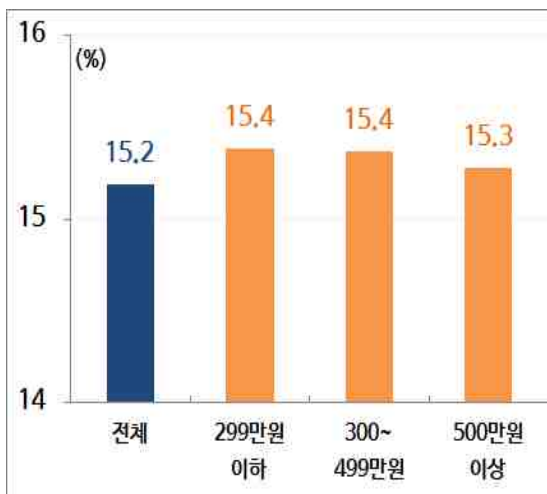
- (종사상지위별) 종사상지위별 체감 실업률 차이는 크지 않음

- 응답자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임금근로자의 체감실업률은 각각 15.3%와 15.2%로 유사한 수준
- 자영업자의 체감실업률은 15.4%로 임금근로자 대비 소폭 높지만, 전반적으로 종사상지위별 체감실업률 차이는 크지 않음

- (성별) 경제활동이 활발한 남성의 체감 실업률이 여성보다 0.4%p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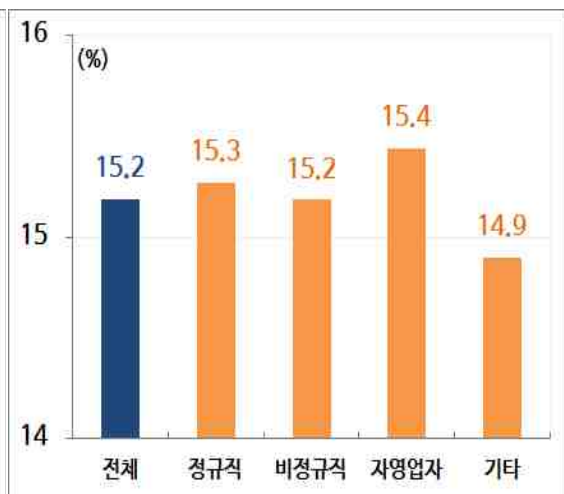
- 남성의 체감실업률은 15.4%, 여성의 체감실업률은 15.0%로 남성의 체감실업률이 0.4%p 높은 것으로 조사
-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남성이 여성보다 현재 노동시장에서 체감하는 실업률이 더 높다고 인식³⁾

< 체감실업 : 月소득수준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주 : 응답자 가구의 세후소득 기준.

< 체감실업 : 종사상지위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주 : 기타는 주부, 학생, 무직 등을 포함.

3) 2014년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 74.0%, 여성 51.3%임.

④ (체감소득) 가계 소득은 실제로 증가하고 있지만, 응답자들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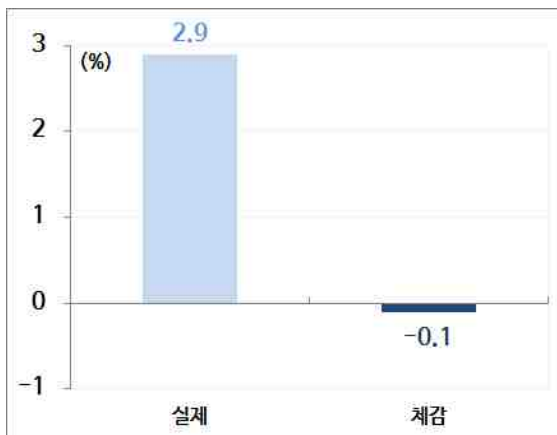
○ 응답자 평균 체감 소득증가율은 -0.1%로 실제 소득증가율 2.9%를 하회

- 정부가 발표한 소득증가율은 2015년 2분기 기준 2.9%이나 국민의 체감 소득증가율은 마이너스(-0.1%)로 3.0%p의 격차를 보임
 - “정부는 가계소득이 1년 전에 비해 2.9%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귀하를 포함한 귀댁의 소득은 몇 % 증가하거나 감소한 것 같습니까?”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평균 체감 소득증가율은 -0.1%로 조사
 -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2/4분기 가계동향 중 가구당 월평균 소득증가율 2.9%(전년동기대비, 명목기준)와 비교하면, 응답자들은 실제 지표와는 달리 가계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

○ 특히 50대 이상의 은퇴연령층과 자영업자들이 체감소득에 비관적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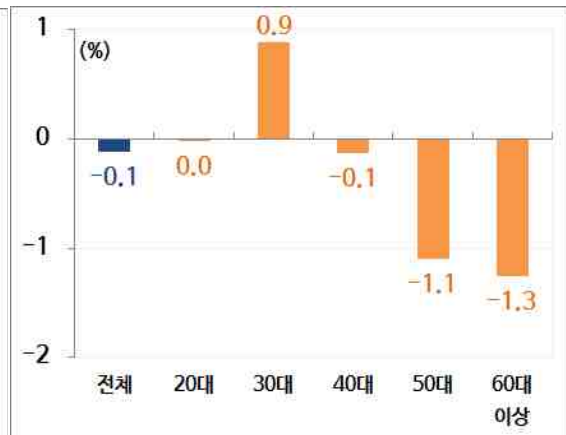
- (연령별) 은퇴연령층에 있는 50대와 60대 이상의 체감 소득은 감소하고 노동시장 신규진입이 활발한 30대의 체감 소득은 증가
 - 50대와 60대 이상의 체감 소득증가율은 각각 -1.1%와 -1.3%로 조사되어, 은퇴연령층에 있는 50대 이상은 소득도 감소하고 있다고 체감
 - 반면, 30대의 체감 소득증가율은 0.9%로 여타 연령층에 비해 높게 응답했는데, 이는 신규 취업 등으로 실제 소득이 증가하는 연령층이기 때문

< 체감 및 실제 소득증가율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 체감소득 : 연령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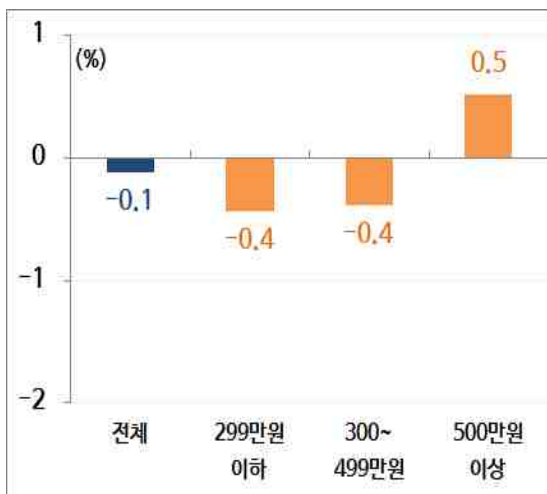
- (월소득수준별) 월평균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만이 체감 소득이 증가하고 있다고 응답

- 월평균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의 체감 소득증가율은 0.5%로 소득이 증가하고 있다고 인식
- 그러나 월평균 가구소득이 299만원 이하, 300~499만원인 응답자의 체감 소득증가율은 모두 -0.4%로 감소하고 있다고 인식
- 고소득층을 제외한 중·저소득층이 체감하는 소득증가율은 평균을 크게 하회하고 있어 중·저소득층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경제 활력이 저하될 가능성
- 또한 월소득수준별 체감 소득증가율 격차가 확대될 경우 소득계층별 소득 격차 확대 가능성을 내포

- (종사상지위별) 자영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고 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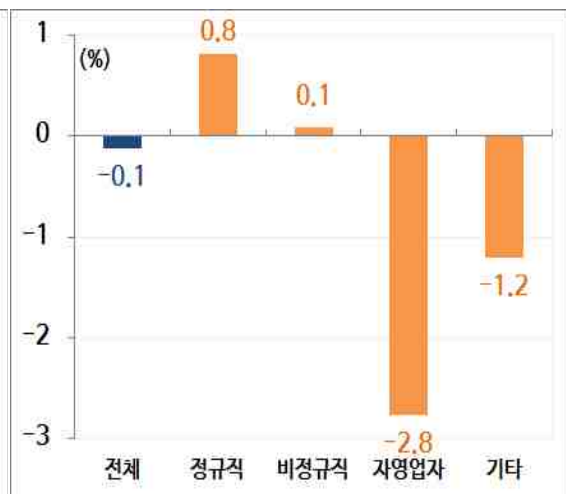
- 응답자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임금근로자의 체감 소득증가율은 각각 0.8%와 0.1%로 평균(-0.1%)보다 모두 높은 수준
- 이는 최근 기업수익 악화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보전되고 있음에 기인
- 반면, 자영업자의 체감 소득증가율은 -2.8%로 매우 낮게 조사되어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경기 위축이 임금근로자들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최근 내수경기 침체로 자영업자의 실제 수입이 악화된 것에 기인

< 체감소득 : 月소득수준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주 : 응답자 가구의 세후소득 기준.

< 체감소득 : 종사상지위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주 : 기타는 주부, 학생, 무직 등을 포함.

⑤ (체감지출) 응답자들은 실제보다 의무지출부담이 더 크게 증가했다고 인식

○ 응답자 평균 체감 의무지출 증가율은 실적치를 크게 상회한 반면, 문화·여가 지출 증가율은 낮은 수준 기록

- (의무지출) 정부가 발표한 의무지출 증가율은 2.6%이나, 국민이 느끼는 체감 의무지출은 3.8% 증가하여 격차가 1.2%p를 기록

· “정부는 가계의 교육비·주거비·의료비 지출이 1년 전에 비해 2.6%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귀댁은 몇 % 증가하거나 감소한 것 같습니까?”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평균 의무지출(교육비+주거비+의료비) 증가율은 3.8%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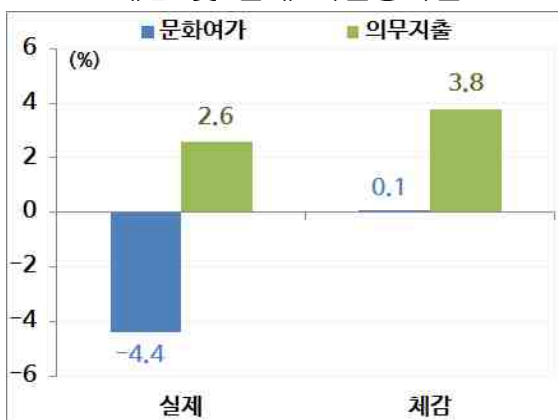
·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2/4분기 가계동향 중 가구당 월평균 의무지출 증가율 2.6%(전년동기대비, 명목기준)와 비교하면, 응답자들은 실제 지표와는 달리 의무지출이 더 크게 증가했다고 생각

- (문화여가) 정부가 발표한 문화·여가지출 증가율은 -4.4%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국민이 느끼는 체감 문화·여가지출은 0.1% 증가

· “정부는 가계의 문화·여가 지출이 1년 전에 비해 4.4%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귀댁은 몇 % 증가하거나 감소한 것 같습니까?”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평균 문화·여가 지출 증가율은 0.1%로 조사

·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2/4분기 가계동향 중 가구당 월평균 문화·여가지출 증가율 -4.4%(전년동기대비, 명목기준)와 비교하면, 응답자들은 실제 지표와는 달리 문화·여가지출이 더 크게 증가했다고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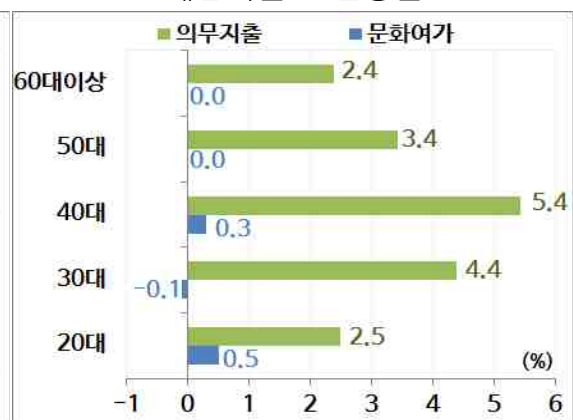
< 체감 및 실제 지출증가율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주 : 의무지출 = 교육비 + 주거비 + 의료비.

< 체감지출 : 연령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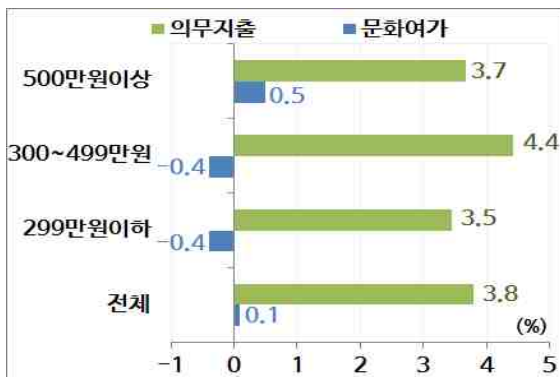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4) 2015년 2분기 메르스 여파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감소폭이 크게 발생.

○ 특히 의무지출은 대부분 증가했으나, 문화·여가지출은 감소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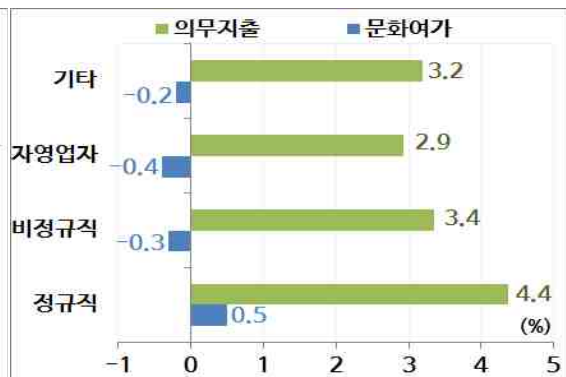
- (연령별) 30대가 체감하는 의무지출 부담은 크게 증가한 반면, 문화여가지출은 감소하여 삶의 질 저하 우려
 - 30대와 40대의 체감 의무지출 증가율이 평균을 상회하는 4.4%와 5.4%로 조사된 가운데, 30대가 체감하는 문화·여가지출 증가율은 -0.1%로 여타 연령대 대비 유일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50대와 60대의 체감 문화·여가지출 증가율은 모두 0%로 조사
- (월소득수준별) 중소득층이 체감하는 의무지출 부담은 가장 높고 문화·여가지출은 감소
 -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499만원 수준의 중소득층의 체감 의무지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4.4%를 기록한 반면, 체감 문화·여가지출 증가율은 -0.4%로 감소
 -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은 체감 의무지출증가율이 3.7%로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며, 체감 문화·여가지출 증가율은 0.5%로 증가
 - 월평균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체감 의무지출증가율은 평균보다 낮은 3.5%, 체감 문화·여가지출 증가율은 -0.4%로 조사
- (종사상지위별) 정규직이 체감하는 의무지출 부담이 가장 크게 증가
 - 응답자 중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의 체감 의무지출 증가율은 각각 3.4%, 2.9%로 평균을 하회하는 반면, 정규직은 평균을 상회하는 4.4%로 가장 높음
 - 정규직의 체감 문화·여가지출 증가율은 0.5%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는 각각 -0.3%와 -0.4%로 감소하여 경기 둔화로 문화·여가지출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판단

< 체감지출 : 月소득수준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주 : 응답자 가구의 세후소득 기준.

< 체감지출 : 종사상지위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주 : 기타는 주부, 학생, 무직 등을 포함.

⑥ (체감 및 실적경제고통지수 비교)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기는 실제 경기보다 더 어렵다고 인식

○ 국민들의 체감경제고통지수는 22.0p로 실적경제고통지수 8.5p를 크게 상회

- (전체) 2015년 3분기 체감경제고통지수는 22.0p로, 정부 공식 통계치로 산출한 실적경제고통지수 8.5p 보다 13.5p나 높은 수준

- 오쿤의 경제고통지수를 활용해 체감경제고통지수(= 체감물가상승률 + 체감실업률 - 체감소득증가율 + 체감의무지출증가율 - 체감문화여가지출증가율)를 산출⁵⁾
- 2015년 3분기 체감경제고통지수는 22.0p로 실적치인 8.5p보다 13.5p나 높아 격차가 큰 편이며, 이는 체감 및 공식 실업률 차이가 주요 원인임
- 정부가 발표한 실업률은 3.7%인 반면,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15.2%로 11.5%p나 더 높은 수준

- (연령별) 40대의 체감경제고통지수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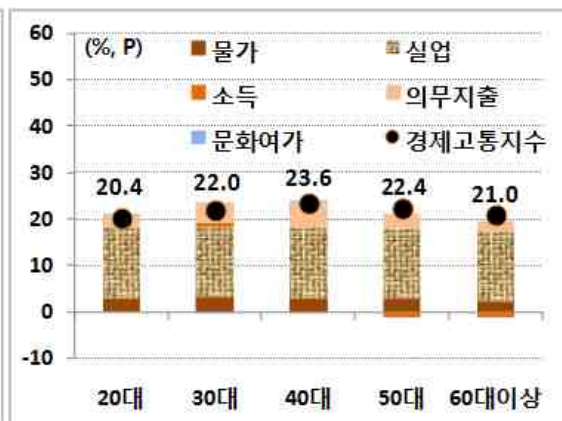
- 40대의 체감경제고통지수는 23.6p로 타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
- 특히 40대의 경우 의무지출(5.4%)과 실업률(15.3%)이 타연령대와 전체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경제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 체감경제고통지수가 전체 평균보다 낮은 연령대는 20대와 60대 이상에 불과
- 60대 이상의 고령층은 체감 실업률도 나쁘고 소득도 -1.3%를 기록하고 있지만, 체감경제고통지수가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

< 체감 및 실적경제고통지수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 체감경제고통지수 : 연령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5) 자세한 내용은 <별첨2> 참조.

- (월소득수준별) 중산층의 체감경제고통지수가 가장 높은 반면, 고소득층은 가장 낮은 편

- 2015년 3분기 월소득수준별 체감경제고통지수 조사 결과, 월소득수준 300~499만원의 중산층이 23.3p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이 가장 낮은 20.6p를 기록
- 특히 중산층의 의무지출 부담은 4.4%로 저소득층(3.5%), 고소득층(3.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이에 따라 체감경제고통지수도 가장 높게 나타남
- 이는 중산층이 소득 대비 높은 교육비, 주거비 등 의무지출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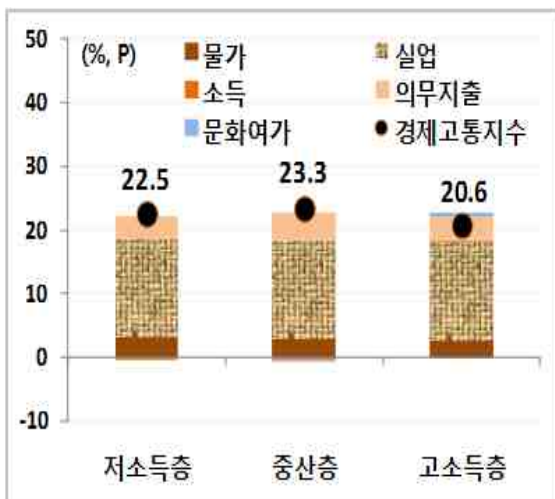
- (종사상지위별) 자영업자의 체감경제고통지수가 가장 높음

- 2015년 3분기 종사상지위별 체감경제고통지수 조사 결과, 자영업자가 23.8p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정규직 및 비정규직 등 임금근로자는 각각 21.4p, 21.9p를 기록
- 자영업자의 체감경제고통지수가 다른 계층에 비해 높은 것은 체감소득 수준이 -2.8%로 가장 낮은 것에 기인(정규직 0.8%, 비정규직 0.1%)

- (성별) 남성의 체감경제고통지수가 여성에 비해 약간 높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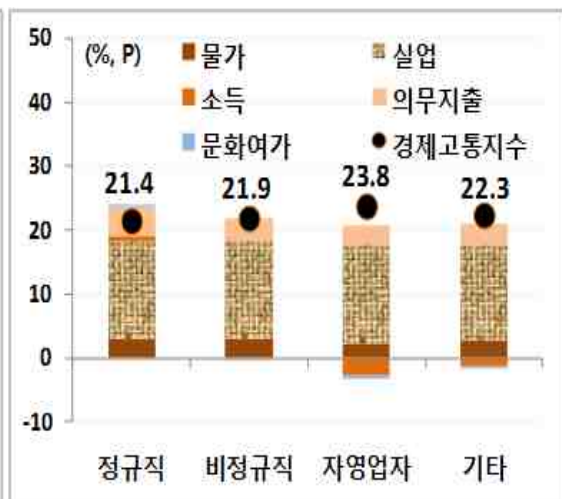
- 2015년 3분기 성별별 체감경제고통지수 조사 결과, 남성과 여성은 각각 22.1p, 21.9p 수준으로 비슷하나 남성이 약간 높은 수준을 기록

< 체감경제고통지수 : 소득수준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체감경제고통지수 : 종사상지위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6) 현대경제연구원(2015.02), 우리나라 중산층 삶의 질 변화, 현안과 과제 15-06호에서도 유사한 분석 결과.

○ 2015년 3분기 현재 체감경제고통지수를 종합해 본 결과, 체감경제고통이 가장 큰 사람은 '40대 중소득층 자영업자'임

- 2015년 3분기 현재 체감경제고통을 가장 크게 느끼는 사람은 '40대 중소득층 자영업자'고, 가장 작게 느끼는 사람은 '20대 고소득층 정규직'임
- 현재 체감경제고통지수가 40대(23.6%), 중소득층(23.3%), 자영업자(23.8%)에서 높은 반면, 20대(20.4%), 고소득층(20.3%), 정규직(21.4%)에서는 낮은 편

< 2015년 3/4분기 체감경제고통지수 >

(%)

구분	체감성장	체감경제고통지수						
		물가	실업	소득	의무지출	문화지출		
전체가구	-0.2	22.0	3.0	15.2	-0.1	3.8	0.1	
성별	남자	-0.2	22.1	2.9	15.4	-0.2	3.7	0.1
	여자	-0.3	21.8	3.0	15.0	0.0	3.8	0.2
연령별	20대	-0.1	20.4	2.9	15.4	0.0	2.5	0.5
	30대	-0.3	22.0	3.2	15.2	0.9	4.4	-0.1
	40대	-0.3	23.6	3.0	15.3	-0.1	5.4	0.3
	50대	-0.2	22.4	3.1	14.8	-1.1	3.4	0.0
	60대 이상	0.0	21.0	2.5	14.8	-1.3	2.4	0.0
소득별	저소득층	-0.2	22.5	3.2	15.4	-0.4	3.5	0.0
	중소득층	-0.4	23.3	3.0	15.4	-0.4	4.4	-0.1
	고소득층	-0.1	20.6	2.7	15.3	0.5	3.7	0.5
종사상지위별	정규직	-0.3	21.4	3.1	15.3	0.8	4.4	0.5
	비정규직	-0.2	21.9	3.1	15.2	0.1	3.4	-0.3
	자영업자	-0.6	23.8	2.3	15.4	-2.8	2.9	-0.4
	기타	0.0	22.3	2.9	14.9	-1.2	3.2	-0.2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체감경제고통지수 = 체감물가 상승률 + 체감실업률 - 체감소득 증가율 + 체감의무지출 증가율 - 체감문화여가지출 증가율”로, 구성 지표의 기여도는 계산식의 부호를 적용.

3. 시사점

○ 체감경기가 실제 경기보다 훨씬 부정적인 만큼, 민간소비를 자극하기 위해 소비여건 개선과 더불어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대책 강구

-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 가계 소득 증대

- 실제 소득과 체감 소득의 괴리, 실제 실업률과 체감 실업률의 괴리는 더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지 못한 데서 기인
- 특히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고 여기는 저소득층 및 50대 이상을 중심으로 소득 증가 정책 마련
- 근로장려세제 강화, 실업급여 및 최저생계비 보장,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 등과 같은 사회안전망 확대
-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퇴직연금을 포함한 개인연금 확대 및 안착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 자영업자 소득 증대를 위해 비자발적·생계형 창업을 축소하고 재취업 일자리를 확대

- 자영업 컨설팅 지원, 직업 훈련 등을 통해 준비된 창업을 확대하고 사업 소득을 증가
- 경쟁력과 시장기반이 취약해 한계 상황을 맞이한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촉진과 사업 전환에 대한 지원을 유도
- 동시에, 재취업 일자리 확대, 재취업 기술·경영 교육, 인력부족 기업과의 연결 등 재취업환경을 개선하여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 및 비자발적·생계형 창업을 축소

- 가계의 의무지출 부담은 덜어주고 문화·여가 향유 기회를 확대

- 국민들이 체감하는 의무지출 부담은 증가하고 여가생활을 즐길 여력은 위축되고 있어 삶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
- 특히 월평균 가구소득 300~499만원의 중소득층이 체감하는 의무지출 부담은 크게 증가한 반면, 문화여가 지출은 감소하여 삶의 질 저하 우려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교육 정상화 등으로 의무지출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의 실질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동시에 과도한 노동시간 단축,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등 여가 수요 기반 확대

- 경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넓히고 디플레이션 우려를 완화할 커뮤니케이션 대책 강화
 -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로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근원물가 상승률 및 기대 인플레이션이 2%대를 유지하고 있어 디플레이션에 진입할 가능성은 희박
 -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 즉 경기 위축과 물가 하락의 악순환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만큼, 디플레이션 우려를 완화해 체감경기를 개선하는 커뮤니케이션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

이용화 선임 연구원 (2072-6222, yhlee@hri.co.kr)
백다미 선임 연구원 (2072-6239, dm100@hri.co.kr)

<별첨1> 응답자 특성

(%)

응답자 특성		비중	응답자 특성		비중
전체	806명	100%	소득 수준별	~300만원	29.4
성별	남성	50.5		300~499만원	32.4
	여성	49.5		500만원~	28.5
연령별	20대	23.9	순자산 규모별	1억원 미만	12.9
	30대	24.7		1억~3억원 미만	33.6
	40대	24.3		3억~5억원 미만	14.3
	50대	15.5		5억원 이상	15.6
	60대 이상	11.5			
지역별	서울	20.8	가구주 직업별	정규직	52.2
	인천/경기	27.3		비정규직	11.8
	충청/호남권	25.1		자영업자	11.3
	영남권	26.8		기타	24.1
			가계 수지	흑자가구	18.7
				균형가구	49.8
				적자가구	30.8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별첨2> 체감경제고통지수 정의 및 산출방식

- (선행연구) 경제고통지수는 경제학자 오쿤(Okun)에 의해 처음 고안되었으며, 이후 여러 가지의 보완된 지표가 개발
 - 경제고통지수(Misery Index)는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의 합으로 경제적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
 - 오쿤(Okun, 1975)은 국민의 삶에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이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 착안하여 두 개의 합으로 경제고통지수를 고안
 - 베로(Barro, 1999)는 소득과 이자지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존의 오쿤의 경제고통지수에 국민소득증가율과 이자율을 포함한 지표를 제안
 - 한국은행은 국민의 소비심리와 체감경기를 파악하기 위해 소비자동향조사를 통해 체감경기 및 소비, 지출, 물가에 대한 조사를 시행
- (정의) 현대경제연구원의 체감경제고통지수는 오쿤의 경제고통지수(실업·물가)에 소득 및 지출 변수를 포함하여 새롭게 구성
 - 기존의 경제고통지수들이 포함하고 있는 실업률, 물가상승률, 소득상승률 뿐만 아니라 지출변수를 추가
 - 소비 지출 중 문화여가지출은 체감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인 반면, 교육·주거·의료비 같은 의무지출은 체감경기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 문화여가지출은 오락·문화 등에 대한 지출로, 내구재 지출과 유사하게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의무지출은 주거, 보건, 교육 등에 대한 지출로,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 둔화 시 의무지출이 크게 변동하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해 체감경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음
 -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고통지수의 하위 지표 5개에 대해 국민 개개인의 체감도를 조사하고 지수로 구축
 - 오쿤 등의 경제고통지수는 정부가 발표하는 거시경제 지표를 이용하여 산출
 - 반면 현대경제연구원의 체감경제고통지수는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물가와 실업, 소득, 지출을 이용하여 산출

○ (산출방식) 체감경제고통지수는 5개의 하위지표를 이용하여 산출

- 체감경제고통지수 : 현재의 물가, 실업, 소득, 지출 지표 5개로 산출
 - 1년 전에 비해 현재의 체감물가상승률, 체감소득증가율, 체감의무지출증가율, 체감문화여가지출증가율
 - 체감실업률($\frac{\text{실업자}}{\text{취업자} + \text{실업자}} \times 100$)은 스스로 생각하는 현재의 고용상태

$$\text{(식) 체감경제고통지수} = \text{체감물가상승률} + \text{체감실업률} - \text{체감소득증가율} + \text{체감의무지출증가율} - \text{체감문화여가지출증가율}$$

- 경제고통지수 1p 상승의 국민경제적 의미
 - 물가상승률 측면 : 모든 가구의 실질소득이 1%p 감소
 - 실업률 측면 : 일자리 26.5만개 감소
 - 소득증가율 측면 : 모든 가구의 실질소득이 1%p 감소
 - 의무지출증가율 측면 : 모든 가구의 의무지출 1%p 증가
 - 문화여가지출증가율 측면 : 모든 가구의 문화여가지출 1%p 감소

< 체감경제고통지수 구성 >

체감경제고통지수		선행연구	영향 방향
현재	전망		
1년 전 대비 현재 체감물가상승률	1년 후 전망 체감물가상승률	Okun(1975)	(+)
현재 체감실업률	1년 후 전망 체감실업률	Okun(1975)	(+)
1년 전 대비 현재 체감소득증가율	1년 후 전망 체감소득증가율	Barro(1999)	(-)
1년 전 대비 현재 체감의무지출증가율	1년 후 전망 체감의무지출증가율	조현성(2008)	(+)
1년 전 대비 현재 체감문화지출증가율	1년 후 전망 체감문화지출증가율	Malgarini and Margani(2007)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